

팔각오층석탑 봉안 성보
(남양주 수종사, 조선 15세기 등, 보물).

경기 북부 지역 대표 불교문화유산 '한자리에'

2024 불교중앙박물관 특별전
'큰 법 풀어 바다 이루고, 교종본찰 봉선사'

9월 5일부터 12월 1일까지 개최
보물 15건 등 93건 262점 전시
'비로자나삼신괘불' 등 첫 공개



비로자나삼신괘불(남양주 봉선사, 조선 1735년, 보물).

김내영 기자 rlasodud0994@naver.com

경기 북부 지역 불교문화유산의 우수한 가치를 한자리에서 조망하는 특별한 전시가 마련된다. 본사인 봉선사를 중심으로 본·말사가 소장한 대표 성보 문화를 집중 조명, 유구한 역사와 문화유산적 가치를 입체적으로 소개하고 있어 기대를 모은다.

조계종 불교중앙박물관(관장 서봉 스님)은 제25교구본사 봉선사(주지 호산 스님)와 9월 5일부터 12월 1일까지 박물관 전시실에서 2024 특별전 '큰 법 풀어 바다 이루고, 교종본찰 봉선사'를 개최한다.

특별전에는 봉선사 본말사의 성보문화유산, 폐사지 발굴 유물, 간행 불서 등 보물 15건과 유형문화유산 15건, 유형문화유산자료 4건 등 총 93건 262점이 전시된다. 이를 위해 봉선사 본·말사는 물론 해인사, 통도사, 국립중앙박물관, 국립고궁박물관 등 사찰과 기관 26곳의 협조를 받았다.

특히 높이 약 8m 규모의 대형 불화인 남양주 봉선사 '비로자나삼신괘불'과 고려 관음보살상의 명작으로 손꼽히는 양평 용문사 '금동관음보살좌상', 불상에 광배까지 남아 있어 탁월한 가치를 인정받은 흥국사 '목조석가모니삼존상' 등 주요 문화유산이 특별전을 통해 처음 공개된다.

전시는 1부 '봉선사, 산문을 열다', 2부 '불교, 경기 북부를 물들이다', 3부 '선지식, 미래를 꿈꾸다'로 구성됐다.

1부에서는 봉선사의 창건과 역사, 광릉 관련 성보가 전시된다. 봉선사는 969년(광종 20) 운악사라는 이름으로 산문을 열었다. 이후 세조와 정희왕후와의 인연으로 사세를 일신했고, 교종을 대표하는 사찰로 자리매김했다. 이에 따라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세조 어진 초본'과 해인사성보박물관 소장 '세조 대왕 진영'이 최초로 비교 전시된다.

'불교, 경기 북부를 물들이다'에서는 경기 북부 지역을 장엄한 봉선사 본말사의 찬란한 불교문화가 소개된다. 삼화상(지공·나옹·무학 스님)과 깊은 인연이 있는 양주 회암사, 조선 왕실과 밀접한 연관을 맺어온 수종사, 근대 불교회화 거점으로 기능하고 있는 흥국사, 불암사 등의 불교문화도 함께 감상할 수 있다.

일제강점기와 광복 이후 월초·지월·운허 스님 등 여러 선지식은 봉선사 본말사를 이끌며 불교는 물론 국가와 민족을 위한 독립운동에 매진했다. 3부 '선지식, 미래를 꿈꾸다'에서는 독립운동과 교육, 후학 양성에 힘쓴 근현대 선지식의 업적을 살펴본다.

앞서 불교중앙박물관은 9월 3일 박물관 로비에서 성보이운식을 진행하고, 9월 4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지하공연장에서 특별전 '큰 법 풀어 바다 이루고, 교종본찰 봉선사' 개막식을 열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치사에서 "천년의 시공을 넘어 교종본찰의 종풍과 선종의 수행정신을 함양한 봉선사의 역사적 가치를 알릴 수 있는 특별전이 마련돼 뜻깊다"며 "유구한 역사와 선조의 지혜가 깃들어 있는 성보를 친견하면서 신심을 더욱 고취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스님은 이어 "이번 특별전을 통해 전법을 향한 간절한 마음과 전통 문화유산의 가치가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불교중앙박물관장 서봉 스님은 "이번 특별전은 조계종 제25교구 소속 사찰의 오랜 역사와 문화를 쉽게 이해하고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데 그 의미가 있다"며 "예경의 대상이자 예술작품으로 승화된 봉선사 본말사의 찬란한 성보들의 우수성과 아름다움을 보고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서봉 스님은 이어 "금년도에는 봉선사 특별전 관련 학술대회를 개최해 '근현대 봉선사 선지식'에 대한 조명과 경기 북부 지역에 집중된 '왕실 원당' '불교회화' '불교 조각' 등을 주제로 왕실 관련 주요 문화유산을 깊이 있게 살펴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봉선사 주지 호산 스님은 "올해 초 보스턴 미술관에서 불조사리를 환지본처한 인연과 때마침 불교중앙박물관과 봉선사 특별전을 개최하게 된 것은 '시절 인연'이라는 표현이 딱 맞아 떨어진다"며 "역대 조실스님들의 뜻을 이어 본말사 스님들과 더욱 열심히 정진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문화사업단, 템플스테이·사찰음식 논문 공모전

10월 25일까지 이메일 제출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만당 스님, 문화사업단)이 (사)한국관광학회와 함께 '2024 템플스테이·사찰음식 논문 공모전'을 시행한다. 템플스테이와 사찰음식의 가치와 의의를 학술 차원에서 살펴보고, 한국 불교문화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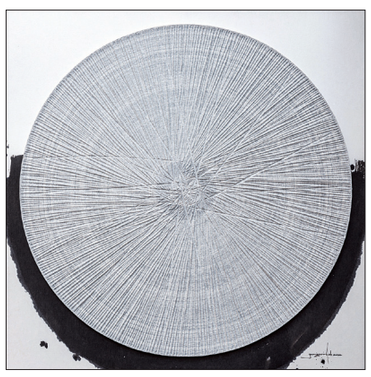
공모 주제는 템플스테이 또는 사찰음식 관련 자유주제다. 내·외국인 누구나 개인 또는 4인 이하 팀으로 응모할 수 있다. 논문 제출 기간은 10월 25일까지며, 관련 양식을 작성해 이메일(tosok.hfm@gmail.com)로 제출하면 된다.

심사와 시상은 템플스테이와 사찰음식 2개 부문으로 나눠 진행된다. 10월 25일 서면 심사를 거쳐 11월 15일 최종 선정 논문이 발표된다.

김내영 기자

무한의 線에 담긴 禪을 탐구하다

무우수갤러리, 9월 11일~10월 14일
서정민 작가 초대전 '무한의 선(禪)'
선(線) 너머 무한 세계 경험 선사



서정민, LINES 36, 140x140cm, 한지, 2022.

반복적으로 그려낸 선(線)에서 불교적 선(禪)을 탐구하고, 비워진 여백의 선에서 수행과 명상의 본질을 성찰하는 전시회가 마련된다. 서울 무우수갤러리(대표 이연숙)는 9월 11일부터 10월 14일까지 서정민 작가 기획 초대전 '무한의 선(禪)'을 개최한다.

전시에서는 서정민 작가의 '선(Lines) 시리즈' 12개 작품을 만나볼 수 있다. 서 작가는 '한지'를 사용해 습작 서지(붓으로 한지에 서체 연습을 했던 종이)를 수집한 후, 두루마기 기법(무엇인가 적혀 있는 종이를 둘둘 만 것)을 응용해 한지를 말고, 자르고, 붙이고 쪼개 '한지 토막'을 만들었다. 만들어진 한지 토막의 단면은 글의 형상이 바뀌어 먹빛을 머금은 가느다란 선들만 남는다. 이와 같이 글이 선으로 바뀌는 지점의 조각들을 콜라주 방법으로 화면 위에 붙이고 쌓아 무엇(생명체)들이 움직이는 듯한 형상의 집합체를 구현했다. 때로는 동그랗게 말거나 평평하게 깎고 긋는 행위로 생동감을 살리기도 한다.

'한지 화가'라는 애칭까지 생긴 서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 불교적 수행의 의미가 담긴 선(禪)을 통해 보이는 선(線) 너머 극한의 무한으로 들어가는 경험을 선사한다.

서정민 작가는 작가노트를 통해 "서지를 쌓아 화면의 공간을 채우고 비우는 일종의 묵언수행(默言修行)과 같은 반복적인 노동행위를 함으로써 무위자연의 선(線)과 불교적 의미의 선(禪)을 드러내는 것이 작업의 요체"라며 "우리 정서가 밴 먹과 한지를 끊임없이 맞대고 잇고를 반복함으로써 드러난 선에서 자연스럽게 어우러진 흥과 신명을 발견하고, 비움으로써 드러나는 여백을 선으로 바라봄으로써 불교의 본질을 성찰해보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연숙 무우갤러리 대표도 "2024 무우수갤러리 기획 초대전 '무한의 선(禪)'을 통해 서정민 작가가 손끝으로 전달하는 아날로그적 감성과 현대사회에 불어오는 온기를 함께 느껴보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내영 기자



무상 스님



흥선 스님



도운 스님

무상·흥선·도운 스님, 조계종 명장 지정

문화부, 9월 2일 종무회의서
가사 · 탁본 · 지화 분야 선정

불교문화 발전과 전승에 힘쓴 무상·흥선·도운 스님이 조계종 명장으로 지정됐다.

조계종 문화부(문화부장 혜공 스님)는 올해 2월 마련된 조계종 명장 지정·지원 규정을 근거로 9월 2일 종무회의를 거쳐 가사 분야에 무상 스님, 탁본 분야에 흥선 스님, 지화 분야에 도운 스님을 각각 조계종 명장으로 선정했다.

가사 분야 무상 스님은 조계종 가사원 창립부터 지금까지 도편수 소임을 맡아, 40년 이상 전통 가사 전승에 노력하고 있다. 탁본 분야 흥선 스님은 '금석문 탁본' 기능을 보호하고, 소중한 불교 기록문화유산의 지속적 전승을 위해 애쓰고 있다. 지화 분야 도운 스님은 진관사 수륙재 도량 장엄 및 지화 장엄을 도맡아 하고 있다. 2011년부터 진관사 지화학교를 개설·운영하면서 인재 양성에 매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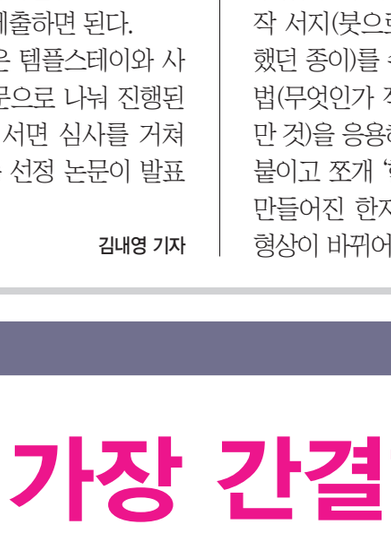
문화부는 "향후 불교문화유산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전승 활동에 더욱 많을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내영 기자

가장 간결한 260자의 불교 철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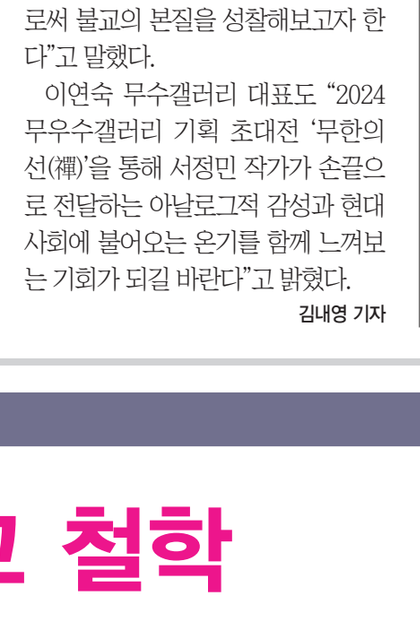
『반야심경』의 글자 하나하나의 의미뿐만 아니라
핵심 사상인 공의 세계로 이끌어 주는 길잡이

화제의 신간



도표와 함께 읽으면 반야심경이 한눈에 쏙 들어온다.
산스끄리뜨본, 한역본, 에드워드 콘즈의 영역본을
비교하여 다양한 각도에서 해설,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반야심경』은 자주 접하는 경전이지만
막상 내용을 모르거나, 너무 기본이라고 생각돼서
차마 주변에 물어보지 못하던 사람들에게
반야심경의 핵심적인 가르침을 명료하게 일깨워 주고 있다.

글 김명우 · 그림 배종훈 | 280쪽 | 18,500원



도표로 읽는 시리즈

도표로 읽는 명상 입문
2023년 세종도서 교양부문 우수도서
글 혜명 김말환 · 그림 배종훈 / 15,800원



도표로 읽는 불교 입문
2016년 세종도서 교양부문 우수도서
글 이자랑 · 이필원 그림 배종훈 / 13,800원



도표로 읽는 유식 입문
글 안환기 · 그림 배종훈 / 15,800원



도표로 읽는 불교 교리
글 법상 · 그림 용정운 / 15,000원



도표로 읽는 부처님의 생애
글 묘장 · 그림 배종훈 / 15,800원



도표로 읽는 경전 입문
글 정운 · 그림 배종훈 / 15,000원



도표로 읽는 천수경 입문
글 목경찬 · 그림 배종훈 / 15,000원



민족사 02)732-2403~4 | www.minjoksa.org